

오피니언

월/요/광/장

양성우



총장로를 거닐고 싶다. 모든 복잡한 생 각들을 내려놓고 한가하게 느린 걸음으로 그 길거리를 배회하고 싶다. 그러다가 심 심하면 길기의 쇼윈도를 들여다보거나 목 이 바르면 찻집에 들어서 커피를 주문하 고 싶다. 전에 아무 근심걱정 없이 내가 거 나는 그곳에서 한걸음을 건너서 얼굴을 아는 이를 만나고, 악수를 하고, 안부를 묻는다면 더욱 좋으리라.

그러다가 흥이 나면 콧노래도 부르고, 공연히 혀자서 미소를 지으면서. 여기저 기 찬란한 조명들이 캐진 상가만 줄지어 서있다고 할들 무슨 상관인가. 옛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그 길에는 서울의 명동처럼 차도 안 달리고 사람들만 가득히 걸어다니므로 무척이나 아늑하고 포근하지 않은가. 더욱이 멋지고 예쁜 젊은 이들이 아침저녁도 없이 어울려서 물려다 낄니다.

그런데 웬일까. 우리의 충장로를 생각하면 어딘가 빈 곳이 있는 것만 같은, 어떤 것인가 한두 가지가 빠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기나 명동이나 다툴없는 구조적인 단순화 때문인가. 아니라면 길거리에 흔히 들리는 막연한 소음 때문인가. 도대체 그 무엇이 걸으면서는 화려한 충장로를 그다지도 단조롭게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끈끈하게 붙드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그곳에는 없는 깊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충장로를 생각할 때마다 어느 한 곳을 머리에 떠올린다. 저 멀리 바다 건너 뉴올리昂즈의 프렌치워터. 운길 바다에 가득히 재즈의 선율이 흘러넘치고, 그곳을 거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리운 충장로

매혹적인 생음악에 몸을 맡기고 물결처럼 흐느적거리는 감동의 길거리. 마치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모인 것처럼 폐를 지어서 걸으면서도 한결같이 음악에 취하는 곳. 아마 내가 충장로를 생각할 때마다 프렌치워터를 떠올리는 것은, 내 마음속에 틀림없이 우리의 충장로가 프렌치워터처럼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어서일까. 우리의 충장로 어디에서나 음악이 흐르고 감동이 흘러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다 취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이지, 지금의 충장로에다 음악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예술을 싣고 덧입혀서 그 길에 우연히 서았지만 해도 누구에게나 가슴이 저릿한 감동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그곳에서 누구

나 밤을 새운들 어찌라. 온 길바닥을 훑쓸려 다니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면 술도 한 잔 나누며 인생을 이야기하자. 연인들끼리라면 더욱 분위기가 있겠지. 가족들이 다 같이 길에 나와서 거닌다면 너무 좋으리라.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을 보듬고 쓰다듬는 차원 높은 그 무엇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므로.

어느 날 저녁에 우리가 무심코 충장로에 나갔는데, 어느 극장 앞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화방이 늘어선 거리에는 그립전시회가 열려있거나 시낭송회가 열렸다고 가정해 보

닐기 위해 광주에 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날에는 광주는 자연히 수입이 넘치고 넘쳐나지 않겠는가. 도시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이, 무슨 이유에서건 세상의 사람들이 무수히 모여들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너도나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분위기에 젖고 싶어서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충장로가 두드려진 예술의 거리가 된다면, 광주야말로 여유롭고 두드려진 명품도시로 우뚝 서는 것은 불을 보듯이 확실한 것이다. 그것뿐 일까. 그때는 이미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라는 말을 넘어서 드디어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의 문화 중심도시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언제인가 나는 그런 명품도시 광주에 가고 싶고, 문화예술이 깊이 스며들어서 곳곳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충장로를 거닐고 싶다. 아무 할 일이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느긋하게 그 길을 거닐고 싶다. 겉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뜨거운 커피를 나누며 시면서 예술을 이야기하고, 세상일을 이야기하고 싶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운동으로 흔뻑 예술의 향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길 위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서 이따금 머리를 들어 봄날의 자애롭고 신비한 무등산을 그윽이 바라보고 싶다.

〈시인·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노강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도중에 40대 판사가 상대방 당사자와의 대화 중에 끼어든 70세 노인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뛰어나 오느냐”고 했다가 노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초에 판사가 노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중앙지법원장에게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와 재발방지책을 권고하여 해당 법원에서 수용하였다고 한다.

당시 판사의 의도는 법정에 절을 지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나, 어린애도 아닌 70세 노인에게 “버릇없다”는 용어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생활이 어려워 또는 사업체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뿌리친다는 것은 자칫하면 자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 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가 자녀는 물론, 도움을 준 노인까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후에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 노인들은 경제력 유무를 떠나서 아직도 자식과 따로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상담을 하다보면 느끼게 된다.

노인 법률지원 시대 열렸다

를 선택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그 노인은 손윗사람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을 손아래 사람에게 들었던 것에 얼마나 충격이 커졌으면 자신의 사건에 관계를 내릴 판사를 상대로 진정까지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 노인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쉬우나,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상담할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노인의 고민이 자녀와의 갈등, 특히 경제적 문제가 법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때는 노인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법률상담을 하려 오는 노인들은 대개 며칠 동안 잠을 못이루다가 울음을 내어온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취업도 되지 않고, 사업체 운영도 잘 안 되는 경우에 가장 쉽게 손을 내미는 대상은 친부모이거나 장인, 장모인 경우가 많다.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노인들로서는 상거래에서와 같이,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 대가를 바라지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법률지원번호 사단(변호사 12명)을 구성하여 노인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생활법률 교육을 해오고 있다.

매월 8일 효사랑데이(광주공원)에 담당 변호사 2명이 출장상담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장상담 또는 생활법률 교육을 하면서 2009년도에는 150여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였다.

상담사례 중에는 부양료나 대여금, 상속, 자녀 이혼에 관한 상담이 많았는데 이럴 때면, 노인관련 기관에서 체계적인 상속, 금전거래에 관한 생활법률 교육을 하였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따른다.

광주변호사회는 2009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으로 노인법률상담과 생활법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법률지원단의 상담창구는 항상 열려있다.

〈노인법률지원단 광주지부장〉

소비자 심리 이용 눈속임 할인판매 ‘불쾌’

이제 내년 겨울이나 일을 겨울용 파카는 오리털 잡바를 1만7천원에 판다”는 안내방송이 들어가기 전 지금 마지막 세일을 하는 곳이 많다. 이 시기에는 옷값이 싸길래 얼마 전 대형 할인점에 갔다. 아동의류 매장을 돌아보니 “단 1시간만 모든 종류의 아이

오리털 잡바를 1만7천원에 판다”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나는 이게 웬 뛰어나 싶어 부리나케 달려가 사이즈가 조금 크다 싶었지만 짚에 아이들 옷을 두 개 골랐다. 적어도 4~5만원은 줘야 하는 오리털 잡바를 이

렇게 싸게 샀으니 큰 돈을 아꼈다는 기쁨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가다 보니 한 귀퉁이에서 방금 전에 샀던 아이들 파카와 비슷하게 전시돼 팔리고 있었다. 혹시나 하여 가까이 가봤더니 내가 산거와 똑같은 제품 아닌가. 전시원에 가격을 물어 봤더니 방금전에 타임 세일이라며 싸게 판 그 가격 그대로 1만7천원에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임세일이라고 팔았던

의류들이 매장 한편에 마련된 할인 코너에서 똑같이 1만7천원에 팔리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소비자들이 싸게 사려는 알뜰함과 물건을 파는 타임밀을 놓치면 다신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고객을 모은 뒤 어짜피 싸게 팔 물건을 갖다 엄청난 인심을 쓰는 양 현혹하는 상술은 고쳐져야 한다.

▲전혜숙·광주지 동구 서석동

시설

초계함 침몰 철저한 진상규명 우선 돼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비탄에 빠졌다. 1천200t급의 대형 전투함이 폭발에 의해 침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46명에 달하는 깊은 군인들이 실종됐다.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 구조다. 실종자들이 살아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尽力을 최대한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해군은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고는 과장이 과장이 과장이다. 내부 폭발 사고이든 외부 공격이든 그 유형에 따라서 사고 수습과 향후 대응 방식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에게 소상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알려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이후 과정을 한 점의혹 없이 공개하고 날마다 설명해야 한다.

만에 하나 이번 사고가 선박 결함과 같은 내부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우리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샌이다. 해군은 물론 전군의 근본 기강을 확립하고 무기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 폭발 이후 침몰까지 구조활동 등 초기 대응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위기 탈출 메뉴얼에 따른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해 보고 있다.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이번 사건에 집중돼 있다. 원인 규명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광역의원들 세금 평평쓰며 하는 일 뭔가

제4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광역의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의심이 드 정도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광역의원 의정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1인당 회의 시간은 각각 10일과 11일에 불과했다.

5천만원에 가까운 광역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를 감안하면 일당이 4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이 같은 의정활동은 ‘혈세만 죽이는 집단’이라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식이라면 지방의회 의원들을 다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 래야 세금이라도 아끼지 않겠는가.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놀고먹는 지방의원들을 철저하게 추려내 도태시켜야 한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잡는다.

無等鼓

농어복 고등어과의 바닷물고기, 불포화 지방산과 셀레늄 등이 풍부한 고단백 저지방 식품, 근육에 혈액이 많아 살은 붉은색을 띤다. 입안에서 살살 녹을 만큼 유효성이 부드러워 회와 초밥으로 즐기는 최고급 어종이다. ‘진짜 물고기’라 하여 참치라고 불리는 참다랑어 얘기다.

아열대성에서 우리나라 연근해에 선 거의 잡히지 않았다. 조업을 하려면 목숨 걸고 면마다 나가야 했다.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잡은 것이 처음으로, 원양어업의 시초다.

국내에선 통조림으로 유통돼 서민들에게 친숙하다. 때마침 국제사회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남획으로 인해 면마다 나가야 했다.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잡은 것이 처음으로, 원양어업의 시초다. 국내에선 통조림으로 유통돼 서민들에게 친숙하다.

참다랑어가 국제사회에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남획으로 인해 면마다 나가야 했다.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잡은 것이 처음으로, 원양어업의 시초다. 국내에선 통조림으로 유통돼 서민들에게 친숙하다.

참다랑어가 국제사회에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남획으로 인해 면마다 나가야 했다.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잡은 것이 처음으로, 원양어업의 시초다. 국내에선 통조림으로 유통돼 서민들에게 친숙하다.

식어장을 조성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양식이 조기에 성공하면 연간 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참다랑어 특등품은 마리당 수천만원까지 간다. ‘참치 대전’ 속에 멀증위기종은 보호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 아니겠는가.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광주 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皓	논설주간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登龍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	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	사 회 2 부	2200-692	문화 흥 보 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7-8005>	<F A X 222-0118>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 치 부	2200-634	여론과 체부	독자서비스국 2200-651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서울 지사 02-773-9335
〈F A X 222-4267〉	2200-536	부 사 부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